"행복한 교육 공동체 함께 실현해요"

도교육청, 교육전문직원 임용후보자 39명 선발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18일 2019년 유·초·중등교육전문직원 임용후보자 선발 공개전형 최종합격자를 발표했다.

유치원 원감 1명, 유치원 교사 3명, 초등교감 4명, 초등교사 13명, 중등교사 18명 등 총 39명이다.

이번 공개전형에는 91명이 지원, 평균 2.3: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서류심사를 시작으로 지난 8일까지 총 3단계의 절차를 거쳐 최종합격자를 선발했다고 밝혔다.

교육전문직원 임용후보자 선발과정은 '가고 싶은 학교, 행복한 교육 공동체+' 실현을 위해 학교혁신 교육정책 수립·추진 및 현장지원 업무능력을 갖추고, 인성적 자질이 우수한 역량있는 교육전문직원을 임용하기 위해 3단계 평가전형으로 실시하고 있다.

1차 소양평가에서는 현행 교육제도나 정책 등에 문제점을 진단하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능력 및 창의적인 기획 능력을 평가했으며, 2차 현장평가에서는 현장방문을 통한 교육활동 실적과 온라인 평가방식으로 동료 교원들의 의견을 설문해 인성적 자질, 동료교원 다면평가를 실시했다. 또한 홈페이지 공개검증을 통해 다양한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했다.

마지막 3차 역량평가에서는 심층면접 및 상호토론으로 컨설팅 역량과 현장조정 능력을 평가했다.

전북교육청은 이번 선발과정에서 평가위원의 2/3를 외부위원으로 위촉해 선발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했다.

한편, 2019년 유·초·중등 교육전문직원 임용후보자 선발 공개전형 최종합격자는 오는 8월 5일부터 9일까지 전라북도 자체 직무연수에 이어 남부권 공동 직무연수에 참여하게 된다.

2019년 유·초·중등 교육전문직원 합격자는 다음과 같다.

◇유치원 원감 1명 ▲강옥선(익산초병설유치원)

◇유치원 교사 3명 ▲김경희(안성초병설유치원) ▲정보영(용안초병설유치원) ▲정수진(진안마이꿈유치원)

◇초등 교감 4명 ▲김중희(옥구초) ▲서선영(이리석암초) ▲이은영(마암초) ▲정혜린(이리중앙초)

◇초등 교사 13명 ▲강영호(함라초) ▲경미란(전주오송초) ▲김미희(정읍남초) ▲김성환(전주동초) ▲우희정(오천초) ▲유은실(도학초) ▲윤인아(전주만성초) ▲윤해영(한솔초) ▲이세창(삼우초) ▲이정숙(전주금암초) ▲임영옥(김제검산초) ▲장은비(군산서초) ▲진보람(금구초)

◇중등 교사 18명 ▲강세웅(임실고) ▲공현주(군산진포중) ▲길국환(무주고) ▲김경의(구이중) ▲김보라(전주평화중) ▲김숙일(전라중) ▲박현주(익산어양중) ▲배헌미(안천중) ▲서민이(익산부송중) ▲안효선(전주고) ▲유경재(군산기계공업고) ▲이원범(덕암고) ▲이정하(군산여자상업고) ▲이호성(고산고) ▲조수인(전주덕일중) ▲진승희(익산부송중) ▲채준석(옥구중) ▲채수복(김제농생명마이스터고)

/장은성기자

공교육 정상화 개선효과 '톡톡'

전북대, 12년 연속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선정

전북대학교(총장 김동원)가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선정·지원하는 '2019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돼 7억 1900만원의 국고지원을 받는다.

이로써 전북대는 지난 2008년 입학사정관제 실시 이후 입학사정관제 운영 지원사업, 입학사정관 역량강화 지원사업 등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에 12년 연속 선정돼 국고를 지원받게 됐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17일 발표한 '2019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추가 선정 결과'에 따르면 전북대 등 68개 대학들이 올해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전북대는 고교교육을 내실화하고 학생과 학부모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 대입 전형에서 학생부 영향력 강화, 고교-대학 연계 강화, 고른기회 전형 입학생들에 대한 추수지도 강화 등 실질적인 공교육 정상화 개선효과를 이끌어 내는 등 거점국립대의 사회적 책무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이 높게 평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최종 선정은 △대입전형 단순화와 투명성 △대입전형 공정성 제고 △학교교육 중심 전형 운영 △고른기회전형 운영 △대입전형 운영 여건 등이 평가에 반영됐다. /장은성 기자

도교육청, '전북 학생통계활용발표회' 개최

전북도교육청이 도내 초·중·고 학생들의 수학탐구능력과 문제해결능력 향상을 위해 '2019 전북 학생통계활용발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회는 도내 학생들이 평소 궁금했던 내용에 대해 직접 주제를 정하고, 자료 수집 및 설문결과 분석 등을 통해 다양한 탐구활동을 하면서 수학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자발적 학습동기를 키우기 위한 행사다.

참가 대상은 도내 초등학교 4, 5, 6학년과 중·고등학교 재학생이며 오는 24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같은 학교 소속 학생 2~3명이 팀을 구성해 직접 기획·연구·제작한 통계포스터 작품을 도교육청에 출품하게 된다.

도교육청은 참가 학생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오는 7월 중 전주근영여자고등학교에서 통계포스터 작성을 위한 통계캠프를 지원할 예정이며, 10월에 발표회를 갖는다.

수상작은 10월 전북 수학체험 한마당 발표장소 및 전시부스, 11월에 전북 학생수학동아리 학술제에서 전시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들이 통계포스터를 제작해 봄으로써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과 문제들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다"면서, "특히 다양한 탐구활동을 통해 창의력 개발과 수학탐구능력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도교육청, '중학생 해외영어캠프 실시… 경비 전액 지원

전북도교육청은 중학교 2학년 학생 100명을 대상으로 7~8월 중 3주간 호주 브리즈번 소재 중학교 세 곳에서 중학생 해외영어캠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13년째 운영되고 있는 중학생 해외영어캠프는 그동안 도내 중학생들에게 영어권 국가에서의 체류 경험을 통해 영어 의사소통 능력 향상에 기여해왔다.

특히, 이번 캠프는 일반전형 35명 이외에도 영어학습환경이 도시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군지역 학생들과 사회적배려대상자에 대한 지원의 폭을 대폭 넓혀 특별전형 학생 65명을 선발해 항공비 포함 캠프 경비 전액을 도교육청이 지원한다.

학교자체 선발 절차를 거쳐 학교장 추천을 받은 학생들은 1차 지필평가, 2차 면접평가를 통해 최종 선발됐으며, 도교육청 주관하에 두 차례의 사전교육을 받은 후 7월 22일 출국해 8월 10일까지 호주 현지 학교와 가정에서 다양한 체험을 하게 될 예정이다.

학생들은 호주 현지의 문화와 역사 등을 ESL 수업에서 배우고 주중과 주말 문화체험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직접 경험해 봄으로써 세계시민의식이 함양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같은 나이 또래의 버디 친구들과 함께 정규 학교 수업을 같이 받고, 현지 가정에서 홈스테이를 함으로써 실생활에서 쓰이는 다양한 영어 표현을 직접 배우고 익히는 등 영어 의사소통능력 또한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은성 기자

전주대 - 효자 5동 '맞손' 마음고민 상담소 운영

전주대학교(총장 이호인)와 전주시 완산구 효자5동(동장 이상배)은 18일 행복플러스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무료 심리검사 및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주대 사회과학대학 김명식 학장은 "최근 늘어나는 우울증과 정신질환 및 그로 인한 자살 사건의 증대 등으로 정신건강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한 때에 지역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는 주민센터 내에서 전주대학교의 상담 전문가 및 수련 학생들이 적절한 심리검사를 하고 그에 맞는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지역의 정신건강을 향상시키는 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상배 효자 5동장은 "효자 5동은 신시가지에 위치해 있어 주민들과 더불어 많은 기관의 직원들이 행정업무 등으로 방문하는 곳으로 관련 홍보의 적절성과 더불어 평소 경험하지 못한 심리검사와 상담은 자신의 정신건강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뜻깊은 기회이다"며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한편, 행복플러스사업은 전주대 상담심리학과 20여 명의 상담인력이 참여하며, LINC+사업의 일환으로 효자 5동을 방문하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심리검사 및 심리 상담을 진행하는 지역사회 공헌 프로그램이며 약 6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전주대학교 LINC+사업단이 지난 17일 본관에서 'LINC+사업단 서포터즈 1기 출범식'을 개최했다.

LINC+사업과 함께+ 신나게+

전주대 LINC+사업단 서포터즈 1기 출범… 산학협력·지역혁신 사례 알려

전주대학교 LINC+사업단(단장 주송)은 지난 17일 본관에서 'LINC+사업단 서포터즈 1기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지원하는 '전주대 LINC+사업단'은 사회맞춤형 산학협력선도대학 육성사업을 대내외에 알리고, 사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역량을 향상하기 위해 학생 서포터즈 33명을 선발했다.

이날 서포터즈 출범식에는 이호인 총장, 주송 LINC+사업단장을 비롯해 사업단 각 센터장과 학생 서포터즈 33명이 참석해 서포터즈 활동의 출발을 알렸다.

LINC+사업단 서포터즈는 각종 LINC+사업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대내외 홍보를 담당하는 홍보대사 역할을 수행하게 되며, 활동 성과에 따라 마일리지 장학금을 지급받게 된다.

주송 단장은 "이번 서포터즈 출범을 시작으로 LINC+사업을 학생, 기업, 지역사회 등 대내외에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학생들이 개인역량도 향상할 수 있도록 운영해 산학협력과 지역 혁신을 선도하는 대학으로서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대 LINC+사업단은 2019년 호남제주권 평가에서 최우수대학으로 선정됐으며, 2018년 선정된 '4차 산업혁명 혁신선도대학' 사업비 10억원을 포함해 연간 53억 8천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장은성기자